



협회 소식

협회 인천지부 결성총회 개최

○ 당 협회는 지난 3.5일 인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조규상 회장을 비롯하여 인천지역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부 결성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성총회에서는 이 문섭회원(삼익악기제조(주) 부속의원장)을 임시의장으로 한 전형위원을 추선, 임원선출을 위임하고 인천지부장으로 문영한박사(연세대 산업보건연구소장)를, 부지부장으로는 안형범(부평 안병원 이사장), 박재현(대우중공업 부속의원장), 이영수(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건강관리실장)으로 선출하고 인천지역회원들을 위한 독자지부로 출발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권내의 공업단지인 인천지역은 과거 협회 발족이후 1966.3 협회산하 7개지부결성과 함께 경기지부로 출범되었다. 그 후 경기지부산하에 복지위원으로 71.4.1 인천근로복지위원이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83.2 센타운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중앙산업보건센터에 흡수 통합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의 승격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오면서도 그동안 가입회원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지부운영을 하지 못하고 경기지부에 존속 운영되어 왔으나 경기지부 또한 관할지역의 특수성과 회원분포의 광역화로 효율적인 지부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케 되어 인천지역 회원들

의 독립지부결성, 운영코자 하는 결의에 따라 '87.2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성을 추진케 되었다.



인천지부 : 인천직할시 북구 가정동 406-1
연락처 : 인천세브란스병원내 산업보건연구소
TEL : 524 - 7506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결성총회 개최예정

○ 노동부 예규 제 134 호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에 따라 당 협회 산하에 새로이 설치되는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결성총회가 4월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이 협의회 결성총회는 지부협의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며, 동 협회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향후 건강진단기관의 자체정화와 건강진단의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게 될 이 협회회 결성을 위하여 협회 산하 12개 지부에 협회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관내의 일반건강진단기관을 파악토록 하는 한편 각 지부별 협회회를 4.10일 이전에 결성완료토록 하였다.

○ 당 협회는 이 협회회 결성을 앞두고 전국 일반건강진단지정기관 대표 및 전국 사업장 사용주에게 동 협회회의 목적과 기본추진방향을 제시한 공한을 보내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해 나가는데 공동노력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지부장 및 사무국장회의 개최

협회는 중요 당면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건강진단기관협회의회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협의및 협회의 금년도 사업추진에 관한 안건협의를 위하여 전국 지부장 및 사무국장회의를 3.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특수검진기관협의회 총회에 앞서 가졌다.

동 회의에서 조 규상회장은 지부장과 사무국

장들에게 일반건강진단협의회 결성과 운영방침에 대한 사항을 재강조하면서 동 협회회 본부총회를 앞두고 협회회 지부결성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지부협의회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협회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87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총회 개최

'87년도 특기협 정기총회가 3.27 서울 팔레스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34개 특수검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년도 정기총회에서는 특기협 운영개선방안을 비롯,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기협운영규정을 개정할 것과 예방의학전문 의제도 실시에 따른 대책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특수검진기관들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 검진실시에 있어서 철저한 검진대상자 파악
- 검진결과의 정확한 판정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철저
- 시설 및 검진인력수준향상등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어 이는 특기협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